

# 학회소식

## 1. 학회활동

### 1) 정기총회

지난 6월 25일 충남대학교에서 199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2년 임기가 만료된 회장과 감사, 이사의 선출이 있었다. 회장과 감사는 현 임원이 유임되었으며, 신입 이사를 선임하는 등 부분적인 개편이 있었다. 신입 임원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會 長 : 徐 敏(충남대 교수)

名譽會長 : 朴秉濠(서울대학교 명예교수)

顧 問 : 丘秉朔, 朴光緒, 李鐘恒, 李熙鳳, 張庚鶴, 玄勝鐘 총 6명

監 事 : 조종식(전 상지대), 이화숙(경원대)

理 事 : 김병대(순천대), 김재문(동국대 경주캠퍼스), 김창록(부산대), 김학동(서울시립대), 박석무(학술진흥재단), 서민(충남대), 손성(동국대), 신영호(고려대), 심희기(동국대), 유성국(배재대; 신입), 윤대성(창원대), 윤철홍(숭실대), 이덕승(안동대; 신입), 이종길(국민대), 이형국(연세대), 임대회(경북대), 정공식(서울대), 정기용(국립 경찰대), 정종휴(전남대), 정진명(부산외국어대; 신입), 최병조(서울대), 최종교(서울대), 한기종(상지대), 한복룡(충남대), 한상돈(중국 연변대) 총 25명

간 사 : 총무·재정 : 정진명

섭 외 : 윤철홍

연구·기획 : 김창록, 유성국, 정공식

편집·출판 : 이종길

## 2) 이사회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후 이사회가 7월 19일에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간사진의 선임을 논의하였고,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인증에 따른 “법사학연구 간행규정”과 “게재비규칙”을 개정하였고, <法史學研究>에 투고되는 논문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2. 정례학술발표회

### 제 49회 정례학술발표회

제1주제 : 위험부담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그 의미

발표자 : 鄭震明(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제2주제 : 영국에서의 법조집단의 형성

발표자 : 李國運(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제3주제 : 유길준의 법사상

발표자 : 이제수(부산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학술보고 : 하버드 법대 방문보고

발표자 : 정종휴(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장소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회의실
- 시간 : 1999년 1월 29일(금) 오후 2시 ~ 7시
- 학술답사 : 1999년 1월 30일
- 장 소 : 동래산성

### 제 50회 정례학술발표회

제1주제 : 兪吉濬의 “人民의 權利”論

발표자 : 鄭容和(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제2주제 : Celsus의 通過取得理論과 準消費貸借

발표자 : 鄭炳浩(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교수)

제3주제 : 조선초기 大明律의 수용과정

발표자 : 조지만(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세미나실

· 시간 : 1999년 4월 24일(토) 오후 2시 ~ 7시

### 제51회 정례학술발표회

제1주제 : 朝鮮後期 山訟事例 研究(2) : 南原 屯德李氏와 海州吳氏의 산송을 중심으로

발표자 : 全昊穆(전북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제2주제 : 詞訟類抄 編纂의 歷史的 意義

발표자 : 任相燦(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정기총회 : 임원 및 회장선출 등

· 장소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

· 시간 : 1999년 6월 25일(금) 오후 2시 ~ 6시

## 3. 회원동정

◎ 서민 회장(충남대 교수)이 그 동안의 법학교육과 법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5월 1일 “법의 날”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다.

◎ 박병호 명예회장(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 『韓國法制史攷』(법문사, 1974 초판; 1983 재판)가 출판저널에서 선정한 “21세기에도 빛날 20세기 고전Ⅲ : 한국 사회과학편”에 선정되었다(출판저널 제253호; 1999/03/05). 선정위원회에서는 문제의식을 중시하여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제의식 면에서는 박병호의 《한국법제사고》를 중요한 업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근대화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족의 재구성, 사적 소유권의 확립에 기초하고 있다. 근대적 국가체제의 성립과 생활세계의 기본을 이루는 친족, 토지소유권에 대한 관계를 문제삼은 점에서 오랫동안 근대 한국의 성립이라는 과제와 씨름해온 이들은 필독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저작이 21세기에도 빛날 가치가 있는 저서로 인정받은 것은 저자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법사학의 존재가치를 되새기게 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 김효진 회원(동아대 교수)은 한국법학교수회가 현암사와 함께 선정하여 수여하는 제6회 현암법학저작상을 『서양헌법이론의 초기 수용』(철학과현실사, 1996)으로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5월 14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동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제4회 박병호 명예회장(서울대 명예교수), 제5회 최병조 회원(서울대 교수)의 수상에 이은 3년 연속으로 본 학회 회원이 수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법사학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심사평은 “헌법학의 시각에서 한국근대사를 추적한 문헌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법학의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여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이 저서는 한국헌법학과 외국헌법학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나아가 한국헌법학의 뿌리를 확고한 바탕 위에 새우려는 노력의 결정체이기도 한다”이다. 법학계의 권위 있는 현암법학저작상을 제4회에서 제6회까지 본 학회 회원이 수여한 것은 수장자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학회의 기쁨이기도 하며, 한국법학이 역사에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회원들이 연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 한국사 관련 기관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육·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회원과 기관의 홈페이지 주소와 내용을 소개한다. 회원들은 자주 방문하여 학술교류와 함께 교육·연구에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 임대희(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중국법사토론실

[http://imdh.knu.ac.kr/debate/d\\_bottom.html](http://imdh.knu.ac.kr/debate/d_bottom.html)

♣ 정궁식(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서울대학교 한국법사 교실

<http://plaza.snu.ac.kr/~kolawhis>

♣ 최병조(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로마법 및 서양법사학 교실

<http://plaza.snu.ac.kr/~romanist>

♣ 김재문(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과대학 교수) 한국전통민족문화의 광장

<http://www.dongguk.ac.kr/~kjm>

♣ 임상혁(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http://www.hitel.net/~IhmSHP>

♣ 국사편찬위원회 <http://nhcc.go.kr>

한국사의 연구동향과 각종자료 및 연구논문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 규장각 : : <http://gyujanggak.snu.ac.kr>

규장각에 소장된 자료의 검색과 함께 해제를 제공하고 있다.